

싱가폴 석유기업 여수 물류기지 건설

Trafigura, 350만달러 투입 ... 12만4000kl 유류저장탱크 12기 및 부대시설

싱가폴 석유기업인 Trafigura가 여수에 유류저장탱크를 포함한 물류기지를 건설한다.

석유제품 유통기업인 Trafigura는 여수에 350만달러를 투자해 낙포동 여수탱크터미널에 12만4000kl의 유류 저장탱크 12기와 이송배관시설 2개 라인, 부대시설 등을 건설할 계획이다.

김충석 여수시장 및 Trafigura 톱 오브라이언 대표, 여수탱크터미널 심장섭 대표는 11월11일 시청 상황실에서 Trafigura가 여수에 석유제품 물류기지 건설 사업에 외자 350만달러와 내자 100억원을 투자하는 내용의 협약(MOU)을 체결했다.

Trafigura는 2009년 매출이 61조원으로 석유제품 유통 세계 3위, 금속 및 비철금속 유통 세계 2위의 세계적인 석유제품 및 자원유통 전문기업으로, 세계 44개국에 67개 사무소를 두고 있다.

여수시 관계자는 “2010년 하반기에 착공해 2011년 말에는 완공·가동할 것”이라며 “Trafigura의 투자 유치로 오일탱킹 KNOC여수에서 추진하고 있는 오일탱크터미널 구축사업과 연계되면 여수는 명실상부한 오일 허브 기지에 한걸음 다가서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0/11/12>